조선대 새 이사 선임싸고 학내 반발 고조

이사회 투표서 결원 이사에 이정남 총동창회장 선정

총학·교수평의회 "옛 재단측 인사…받아들일 수 없다"

'임기만료' 이사도 후임 결정못하면 '임시이사' 불가피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30일 결원 이사에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교수평의회 등 대학자치기구들이 일제히 이사 선임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교육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이사 8명 모두 임기가 만료된 지 이미 10개월이 지난 만큼 후임 이사 선임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원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 끝에, 표결에 부쳐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정이사로 뽑았다. 이사회에는 임기가 끝난 현 이사 8명이 모두 참석해 후보로 추천된 서재홍 조선대 총장과 이정남 총동창회장에 대해 투표를 진행, 이 총동창회장이 5표를 서 총장이 3표를 얻었다.

일단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교수평의회는 물론 노조 등 학내 기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이사회 결정 이후 "옛 비리재단 측 인사"라며 이사장실 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학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옛 경영진 측 이사들이 현 이사 일부와 결합해 이번 이사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창륙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옛 재단과 이어진 인물이 정이사로 들어가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내 자치기구들과 협의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정원이 9명이지만 1명은 공석이었고, 나머지 8명은 많게는 10개월에서 적게는 6개월 이상 임기가 끝나 사실상 '이사 부존재' 상태다.

이사회는 그동안 차기 이사회 구성을 6개월이나 미루고 있다가 "30일까지 공석인 결원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조선대 이사회가 결원이사(1명)를 채워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교육부의 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사들간 이해 관계로 인해 이사 1명을 선임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현 8명의 이사 중 5명만을 차기 이사로 뽑고 3명의 개방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향후 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사 부존재 상태의 장기 혼란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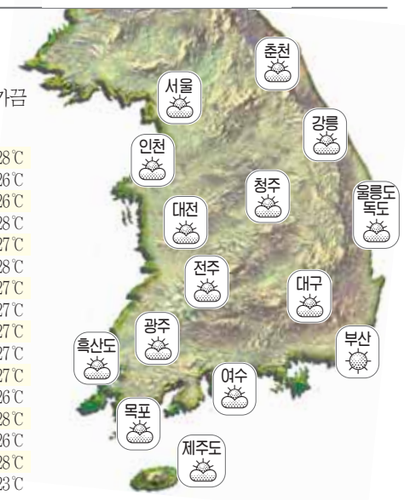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7분 해짐 18시 27분 | 달뜸 02시 35분 달짐 15시 54분

구름 낀 하늘

낮더위 이어지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20/28℃
목 포	구름많음	19/26℃
여 수	구름많음	20/26℃
나 주	구름많음	17/28℃
완 도	구름많음	19/27℃
구 례	구름많음	18/28℃
강 진	구름많음	18/27℃
해 남	구름많음	18/27℃
장 흥	구름많음	18/27℃
순 천	구름많음	17/27℃
영 광	구름많음	19/27℃
진 도	구름많음	18/26℃
전 주	구름많음	18/28℃
군 산	구름많음	17/26℃
남 원	구름많음	16/28℃
흑산도	구름많음	19/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11:26 --:--	05:09 17:09
여수	08:51 19:06	00:48 12: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 씨						
최저/최고	18/25	13/22	11/24	13/25	14/25	18/24

전문대 수시·정시모집

2015년부터 각각 두차례

2015학년도부터 모든 전문대의 수시·정시 모집이 각각 2차례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입학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교과성적, 면접, 실기, 서류 중 2개 이내만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입학전형 개선방안' 및 '201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최대 5차례까지 실시하던 수시·정시의 모집을 2015학년도부터 모두 2차례씩으로 축소·운영하고, 모든 전문대학이 같은 기간 전형을 실시하게 했다.

입학 전형에서 평가 요소를 교과성적, 면접, 실기, 서류 등 4개로 간소화하고, 이 중 2개 이내로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연합뉴스

떳목타고 수초 제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본촌 근린공원 양산제에서 떳목을 타고 수초제거 등 주변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1사단 부대마크 58년만에 바꿨다

육군 제 31 보병사단(사단장 박병기)이 지난 1955년 창설 이래 58년간 사용해온 부대 마크를 바꾼다.

31사단은 1일 오전 사단 사령부에서 열리는 건군 제 65주년 기념행사에서 새 부대마크〈사진〉 선포식을 갖는다. 새 부대마크는 광주·전남지역을 수호하는 방패 모양으로 상단에는 무등산을, 중앙에는 31사단을 나타내는 숫자 '31'을 불꽃 모양으로 형상화한 게 특징이다.

새 부대 마크는 올 초 수차례 공모 절차를 거쳤고 역대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안한 것으로 최근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았다.

기존 부대마크는 1사단 부대마크와 유사한데다, 중앙 화살표의 경우 미사일부대나 포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함평 내교·신안 도창지구 국토부 '위험한 국도' 선정

함평 내교지구와 신안 도창지구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국도 중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국도 위험도로 현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도로 개량 5단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공단은 전국 국도 중 도로 폭이 좁거나 급커브 구간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조사해 위험도로 270곳을 선정했다.

이중 24호선 함평군 함평읍 내교지구와 신안 암태 도창지구는 8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국도는 95점을 차지한 경북 울주군 서생면 신암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곡선 반경과 전후 도로상황·종단 선형·시거(視距.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차로 폭 등의 도로 구조를 비롯한 교통량과 사고 피해 등을 항목별로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사업대상 구간 270개소에서 2007~2011년 교통사고 816건이 일어나 94명이 숨졌으며 중상자와 경상자는 각각 678명과 759명이었다.

정부는 1989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위험도로 270곳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쳐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육부, '기성회비 수당폐지 반발' 국립대 직원 징계

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반발하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의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해 불법·부당행위자를 징계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국립대 직원들이 천막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며 국립대 직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면학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엄정 대처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무원직원에 대한 수당 폐지로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도록 해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 9월부터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서 평생학습 축제

시교육청, 4일~6일 이틀간

학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평생학습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를 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빛으로! 문화로! 세계로! 2013광주'를 주제로 광주지역 19개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아리 경연대회, 특별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기관의 학습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